[UCI]I804:24011-200000237728

2009年 2月
敎育學碩士(日語敎育)學位論文

日本語 複合動詞「～こむ」의 用法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高 敬 美

日本語 複合動詞「～こむ」의 用法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Usages of 「~komu」, a Japanese Compound Verb

2009年　2月　　日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日語敎育專攻

高　敬　美

日本語 複合動詞「～こむ」의 用法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0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高 敬 美

高敬美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副敎授　丁　意　祥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敎授　朴　靑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副敎授　金　熙　照　印

2008年　12月

朝鮮大學校 敎育大學院

目　次

目次 …… i
表目次 …… ii
英文抄錄 …… iii

Ⅰ. 序論

1. 研究目的 …… 1
2. 研究方法 …… 2

Ⅱ. 本論

1. 複合動詞「~こむ」의 先行研究 …… 5
2. 본동사「こむ」와 전항동사「こみ~」의 의미 …… 10
   2.1 본동사「こむ」의 의미 …… 10
   2.2 전항동사「こみ~」의 의미 …… 13
3. 후항동사「~こむ」와 결합하는 전항동사 …… 15
   3.1 自・他動詞에 따른 분류 …… 15
   3.2 動詞의 四分類法에 의한 분류 …… 21
4. 후항동사「~こむ」의 의미 …… 25
   4.1 內部移動의「~こむ」 …… 28
   4.2 程度性의「~こむ」 …… 33
5. 본동사「こむ」와 複合動詞「~こむ」의 관련성 …… 41
6.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적 기능 …… 45
   6.1「~こむ」와「~入れる」의 의미적 차이 …… 46
   6.2「~こむ」와「~入る」의 의미적 차이 …… 49

Ⅲ. 結論 …… 52
參考文獻 …… 55

表 目 次

<表1>　動詞「こむ」와 複合動詞 전항・후항의「こむ」 …… 3
<表2>　姫野(1999)의 複合動詞「~こむ」의 분류 …… 7
<表3>　松田(2004)의「~こむ」용법의 분류 …… 9
<表4>　森田良行(1978)의 전항・후항 複合動詞의 수> …… 13
<表5>　複合動詞「~こむ」의 의미 분류 …… 28
<表6>　内部移動의 複合動詞「~こむ」: 自動詞 …… 32
<表7>　内部移動의 複合動詞「~こむ」: 他動詞 …… 32
<表8>　程度進行A의 종류 및 특징 …… 37
<表9>　程度進行B의 종류 및 특징 …… 39
<表10> 複合動詞「~こむ」의 의미파생 과정 …… 41
<表11> 본고의 複合動詞「~こむ」의 분류 …… 53

<図1 松田(2004)의 「~こむ」のコア図式」> …… 9

ABSTRACT

A Study on the Usages of 「~komu」, a Japanese Compound Verb

Ko, Kyong Mi
Advisor : Prof. Park, Cheong Guk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Japanese has compounds made of more than two words to express that cannot be expressed only with simple words. Compound verbs, a sub-category of compounds, indicates the case there exists a verb at the later part of a word,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 of 「verb+verb」. The meaning of compound verbs can be roughly guessed in connection with the meaning of the two verbs. However, as many of Japanese verbs are polysemou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ether compound verbs are formed according to what meaning elements and, as compound verbs have diverse meanings, difficulties of learning are multiplied. This study examines polysemous「~komu」which is frequently used to understand compound verb with compound structures.

「komu」as a subject verb is used only as an intransitive verb in modern Japanese, but it was originally a function of transitive verb. As an intransitive verb, it has a meaning that inside density grows denser by movement of objects and things and as a transitive verb, it has a meaning that objects or things are fixed through movement within. That is, its meaning as an intransitive verb is "denseness", and that as transitive verb is fixing. Its original meaning is " movement within " The meaning of 「komu」as a transitive verb shown only in archaic language, did not disappear in modern language and appears through 「~komu 」, a compound verb, along with the

meaning of intransitive verbs.

The most common meanings of「~komu」are “movement within” and “degree”. 「~komu」of the former states movement direction of subjects or objects with 「Ni」, a case postposition. However, in case when the area of movement is a subject itself, 「Ni」may be omitted as the meaning can be identified through contexts. The 「~komu」 for“degree” may emphasize its meaning with qualifiers, but it does not accompany「Ni」 unlike " movement within " . That is, according to accompaniment of「Ni」, its meaning can be categorized into “movement within” and “degree”. The「~komu」 for “degree” can be sub-categorized into “progress of degree” and “excess of degree”. The “progress of degree” means complete execution of movements and action of the antecedent verb with three meaning elements of “fixing”, “denseness” and “accumulation”. And as “excess of degree” has the most complicated meanings structure whose meaning cannot be identified only with combined meaning of antecedent and consequent verbs, it indicates few cases where a new meaning is added.

Next, antecedent verbs contact to「~komu」may be intransitive or transitive, and each case component required by antecedent and consequent verbs coexists in one sentence without limitation. Synonyms of「~ireru」「~iru」may have a similar meaning when they are connected with the same antecedent verb such as 「~komu」. However, each compound verb has differences in introduction of implication, range of meaning and degree, and meaning of each is judged to be different. As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according to what compound verbs are used, it is important to use proper words according to situ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compound verbs with abundant expressive power and high productivity of Japanese compounds though they are part of compound verbs.

Ⅰ.序論

1. 研究目的

社會와 文化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보함에 따라 정보 및 지식의 양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맞춰 습득해야 할 언어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단순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語를 결합하여 複合語를 형성하는 특성은 어는 言語를 막론하고 자주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러한 특성 상, 시대의 필요에 의해 語를 복합함에 따라 얼마든지 新語가 탄생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용되는 일본어의 複合語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어를 母語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는 複合語의 습득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複合語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新美和昭는 "複合語란 최소 두 개의 실질적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갖는 큰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複合動詞란 실질적 형태소의 두 개 모두가 動詞이거나, 또는 뒷부분의 형태소가 動詞로 형성된 複合語가 하나의 動詞로서 문법적 성질을 갖는 것"[1]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複合動詞란「乗り換える」와 같이 後 부분의 품사가 動詞로 이루어진 것을 일컫는다.「명사＋동사」,「동사＋동사」,「형용사(형용동사)＋동사」,「부사＋동사」,「접두사＋부사」型이 그러하다. 그리고 動詞는 문법에서 가장 복잡하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言語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따라서 이러한 動詞를 구성요소로 갖는 複合動詞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도 높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石井(1983)[2]는 複合動詞를 "다른 운동을 나타내는 두 개의 요소를 이용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운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단순동사로는 나타낼 수 없는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複合動詞는 단순동사보다 장면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동작이나 상태 등을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표

1) 新美和昭 等 共著(1987)、『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4 複合動詞』荒竹出版
2) 石井正彦(1983)、『現代語複合動詞の語構造分析－＜動作＞・＜変化＞の観点から－、『国語学研究』No. 23

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森田(1994)[3]가『例解国語辞典』에 나와 있는 표제어의 40,393語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動詞는 4,622語(11%)이며, 그 중 본동사는 2,083語(45%), 複合動詞는 2,390語(5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용빈도가 높은 動詞 및 複合動詞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사용되는 複合動詞의 어휘 중에는 現 일본어사전에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은 것이 상당히 존재한다. 여러 動詞와 쉽게 결합하는「~始める」,「~すぎる」를 비롯한 많은 複合動詞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는 複合動詞의 語義를 본동사의 의미와 연관하여 스스로 파악하고 습득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곤 한다. 그 결과, 복잡한 구성의 複合動詞의 사용을 회피하고 단순동사 또는 기본적인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장황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어느 수준의 일본어를 습득한 외국인 학습자라면 전항 및 후항동사의 의미와 연관하여 複合動詞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어의 動詞는 다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의미요소에 따라 複合動詞가 생성되었는지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두 動詞가 결합할 때, 전항・후항동사의 의미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거나, 미묘한 뉘앙스를 갖는 등 자체로서 獨自의 다양한 의미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複合動詞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복잡한 구성의 複合動詞를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빈도가 높고 다의적 성격을 갖는「~こむ」를 중심으로 그 의미특징과 구조에 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다의적 複合動詞의 어휘습득 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여, 複合動詞를 이해하는데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단, 본고는「동사+동사」型의 구조의 연구에 한정한다.

2. 研究方法

寺村[4]는 복합동사 후항의 의미를「時間的相」,「空間的相」,「密度・强度の相」으로

3) 森田良行(1994)、「動詞の複合における意味構成」『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明治書院

분류하고 있다. 본고는 그 중「空間的相」에 해당하는 후항동사로서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こむ」를 대상으로 그 의미용법 및 구조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現代國語例解辞書』5)에는 아래와 같이 예문을 일부 제시하고,「こむ」가 단독용법 또는 複合動詞의 전항 및 후항으로서 의미상 함께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표로 나타내었다.

<表1 動詞「こむ」와 複合動詞의 전항・후항의「こむ」>

例	安売りで 店内が~	日程が~	車で道路が~	小さな店が ~て(で)いる通り	手の~た(だ) 細工
込む	○	○	○	―	○
込み合う	○	―	○	―	―
たて込む	○	○	―	○	―

(○표는 文章에서 使用되는 경우이고, ―표는 使用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의 表는 단독용법의「こむ」와 複合動詞의「こみ~」,「~こむ」가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상 같은 의미로 함께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미적인 측면에서 서로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사전에 記述된 본동사「こむ」와 複合動詞「~こむ」의 의미를 각각 발췌하여 의미 구조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본동사「こむ」와 複合動詞「~こむ」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용례의 조사 분석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 기존의 선행연구는 複合動詞「~こむ」의 의미를「内部移動」과「程度性」으로 양분하여 별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こむ」의 의미를「内部移動」과「程度性」으로 양극화하지 않고, 의미파생의 측면에서 각각의 의미가 어떻게 추상화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또 후항동사「~こむ」는 어떠한 종류의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모든 종류의 동사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는지 결합의 제한을 받는지 결합에 관한 결합조건을 살피고, 특징 별로 분류해보고자 한다. 전항동사의 분류방법은 첫째, 動詞를 단순하게 自・他動詞로 분류하지 않고, 他動詞, 非能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세 종류로

4)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ト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p.164-183
5) 林巨樹(1985)、『現代國語例解辞書』小学館

세분화하여 複合動詞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는 景山의 동사분류법을 따르기로 하며 둘째, 金田一春彦의「動詞四分類法」을 따르기로 한다. 또한 複合動詞「~こむ」가 他動詞, 非能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전항동사와 결합할 때에 文의 구성요소인 格 성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문형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複合動詞「~こむ」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유의어와의 비교를 통해「~こむ」의 의미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入れる」,「~入る」는「~こむ」의 의미용법인「内部移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후항동사들이다. (+는 결합하는 경우)

	~こむ	~いれる	~いる
書キ	+	+	
食べ	+		
踏ミ	+	+	+
走リ	+		

이들 후항동사는「~こむ」와 결합하는 전항과 동일한 전항을 취하여 의미상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각 복합동사「~こむ」,「~入れる」,「~入る」가 나타내는 의미의 범위영역 및 뉘앙스 등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유의어 표현과의 비교를 통해 각 복합동사의 의미적 차이와 용법상의 특징을 밝히고, 복합동사「~こむ」를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本論

1. 複合動詞「～こむ」의 先行研究

일본어의 複合動詞는 양이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그 전반을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난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일본의 여러 연구자들의 견해를 요약하고자 한다. 複合動詞「～こ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寺村秀夫, 森田良行, 景山太郎, 姫野昌子, 松田文子 등을 들 수 있다. 寺村, 森田, 景山는 複合動詞의 결합조건 및 분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고, 姫野, 松田는 複合動詞의 후항의 의미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こむ」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寺村[6]는 三次的 アスペクト[7]에 해당하는 動詞를 크게「時間的相」,「空間的相」,「密度・强度の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こむ」를「空間的相」과「密度・强度の相」의 성격을 갖는 複合動詞에 포함시켰다.「空間的相」으로서의「～こむ」가 나타내는 의미는 "내부로의 이동"이다. 寺村는「～こむ」가 물리적인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전항동사가 自動詞인가 他動詞인가에 따라 ①, ②와 같은 문형을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③과 같은 경우를「密度・强度の相」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①自動詞 :「X(主体)ガ Y(到達点=何かの内部)に ～こむ」

例 : 雨が降り込む。

②他動詞 :「X(主体)ガ Y(受け手)を Z(到達点=内部)に～こむ」

例 : 流れ込む, 詰め込む。

③シーズンオフに、野球選手が<u>走り込んで</u>足腰を鍛える。

---

6)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ト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7) 三次的 アスペクト

寺村는 동사의 연용형에 후접하는 보조동사를 삼차적アスペクト의 형식이라 하였다. アスペクト 형식을 一次的アスペクト(~テイル), 二次的アスペクト(~テクル), 三次的アスペクト로 나누고, 三次的アスペクト를 다시 時間的相, 空間的相, 密度・强度の相으로 分類하였다.

森田[8]는「~こむ」를 크게 自動詞와 他動詞로 분류하고, 自・他動詞를 다시 문형별로 세분화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① 他動詞「~こむ」

㋐「~ヲ~ニ~込む」: '~하여 집어넣다/~하면서 집어넣다'라는 의미관계를 나타낸다.

例)ちらし広告を新聞に折り込む。

㋑「~ヲ~込む」: 대상에 대해 그 동작이나 행위가 깊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즉, '그 대상을 충분히 행하는 것'

例)たくさん着物を着込む。

㋒「~ニ~ヲ~込む」: 특정 상대에게 어떠한 행위를 충분히 행하는 것. '철저하게~하다'라는 행위로,「に」格은 '~에 대하여(에게)"의 의미이다.

例)女に金を注ぎ込む。

㋓「~ヲ~ト~込む」: '그 대상을~라고 완전히~하다'라는 정신적 판단.

「AヲDト~込む」로 A=D로 간주한다.

例)相手をひとか人物と見込んで期待する

② 自動詞「~こむ」

㋐「~ガ~ニ~込む」: 「に」格은 '~속(안)으로'로, 장소 또는 사정을 나타낸다.

例)日が縁側に射し込む。

㋑「~ガ~込む」: '심하게~하다'라는 강조가 된다.

例)仕事が立て込んでいる。

景山[9]는「동사+동사」型의 複合動詞 전체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전항과 후항의 의미관계에 착안하였다. 그리고 후항에 접속하는 전항의 종류를 他動詞, 非能

8) 森田良行(1989)『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9) 影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세 종류로 세분화하여 그 의미특징을 분석하였다.

景山는 후항동사「~こむ」를 項構造가 아닌 語彙概念構造로 달리 보았는데, 그 이유로「~こむ」가 複合動詞의 項構造의 합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他動性調和の現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었다.「他動性調和の原則」이란 다수의 複合動詞가 전항과 후항이 결합할 때에 他動詞와 非能格自動詞는 서로 조화하며 결합하는데 반해, 非対格自動詞는 他動詞, 非能格自動詞와는 서로 수용하지 않는 특징을 말한다. 대부분의 複合動詞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결합의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他動詞, 非能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세 종류와 모두 결합하는 다른 성격을 갖는「~こむ」를 특수한 사례로 보았다. 그러나 景山는 動詞「こむ」가 본래 他動詞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현대어에서는 動詞「こむ」가 自動詞의 기능만을 하고 있지만, 사전『広辞苑』이「こむ」를 自動詞와 他動詞로 따로 구분하여 記述하고 있듯 본래「こむ」는 他動詞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こむ」가 가진 이 他動詞의 기능을 고려하였다면, 「~こむ」도 복합동사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他動性調和の原則」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複合動詞「~こむ」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姫野라고 할 수 있다. 姫野[10]는 複合動詞「~こむ」의 의미를「内部移動」과「程度進行」으로 나누었다.「内部移動」이란 '主體 또는 對象이 어느 영역 속으로 이동하는 것'들 뜻하며, 그 이동해가는 영역은 격조사「ニ」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程度進行」란 '전항이 나타내는 동작・작용의 程度가 진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다시 内部移動의 이동장소와 程度進行의 진행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表2 姫野(1999)의 複合動詞「~こむ」의 분류 >

内部移動	例
閉じた空間	落ち込む
固　体	打ち込む
流動体	溶かし込む

程度進行	例
固着化	黙り込む
濃密化	老い込む
累計化	泳ぎ込む

10) 姫野昌子(1999)、『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隙間のある集合体または組織体	まぜ込む		
動く取り囲み体	くるみこむ		
自己の内部(自己凝縮体)	折り込む		
その他	覗き込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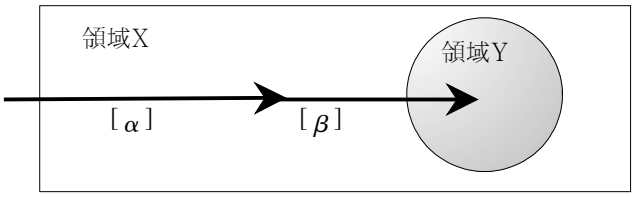
그러나 위와 같이 内部移動의 이동장소를 7가지로 상세하게 분류한 것은「~こむ」의 의미특징과 구조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기 쉽고, 일본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영역이 물리적 영역인지 추상적 영역인지 혹은 정신적 영역까지를 모두 포함하는지에 관한 영역의 범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松田[11]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다의어의 습득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認知意味論의 방법을 이용하여「~こむ」의 다의성과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松田는「~こむ」에 대한 姫野의 연구가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용례를 수집하여, 그 용례를 의미 별로 분류한 것에 그친 姫野의 연구는, 의미 용법 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미 용법간의 원리를 설명하는 수단으로「コア図式」[12]을 상정하여『「~こむ」의 コア図式」』을 설정하고, 「~こむ」를 아래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1) 松田文子(2004)、『日本語複合動詞の習得研究—認知意味論による意味分析を通して』ひつじ書房

12) コア図式
인지의미론에 따라 다의어의 의미구조를 분석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접근방식이 있는데, 그것은「プロトタイプ図式」와 「コア図式」이다. Langacker, 田中, 国広, Dewell 은 다의적어의 전체를 포함하는 공통의 도식을 상정하였는데, 이 공통도식을 Langacker는「超スキーマ」(super schema), 田中는「コア図式」, 国広,는「現象表」라고 부르고 있다. 충분히 구체적인 사례의 語義가 Image schema의 근원이 되는「プロトタイプ図式」에 비해,「コア図式」은 더욱 추상도가 높다.「コア」라는 용어는「プロトタイプ・スキーマ(プロトタイプ概念)」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コア」는 語의 의미전체를 내다보는 것이 가능한 원뿔꼴의 정점과 같은 것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전형、비전형을 불문하고 모든 용례의 배후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図1 松田(2004)의「~こむ」의 コア図式」>



[α] : 내부로의 이동 [β] : 그 장소로의 고착

<表3 松田(2004)의「~こむ」용법의 분류>

ニ格을 동반하는「~こむ」		ニ格을 동반하지 않는「~こむ」	
A 유형	B 유형	C 유형	D 유형
V1이「내부이동」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음	V1 자체가「내부이동」의 의미를 포함	V1이 나타내는 상태로 변화, 또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고착	V1의 반복행위에 따라 생기는 상태변화
飛び込む, 呼び込む	入り込む, 植え込む	冷え込む, 眠り込む	十分に走り込む

(V1:전항동사)

2. 본동사「こむ」와 전항동사「こみ~」의 의미

후항동사「~こむ」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동사「こむ」와 전항동사「こみ~」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2.1 본동사「こむ」의 의미

우선, 여러 사전에 記述된 본동사「こむ」의 의미를 살피고, 그 의미를 정리하여 보자.

『新明解国語辞典』[13]은「こむ」의 의미를 '어느 장소에 사람이 한도까지 가득차서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생각한대로 행동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例) 朝は電車が込む
手が込んだ仕事。

또『角川国語辞書』[14]는 動詞「こむ」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こ·む【込む・混む】
一. (좁은 장소가 사람이나 사물로) 가득 차다. 혼잡하다.
二. [흔히「こんだ」의 형태로] 복잡하게 얽히다. 세밀하게 짜 맞추어져 있다. 정교하다.
…… (省略) ……

위의 내용을 정리한「こむ」의 의미는 '가득 차다', '혼잡하다', '뒤얽히다', '짜 맞추다', '정교하다'이다. 이는『新明解国語辞典』가 제시하고 있는 예문이 나타내는 의미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13) 金田一京助 等 編(1992)『新明解国語辞典』三省堂
14) 久松潜る一外1(1978)『角川国語辞書』角川書店

그리고『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15)은「こむ」의 의미 이외에 아래와 같이 문형, 관용구 등을 함께 記述하여 動詞「こむ」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こ·む【込む・混む】

〖意味・文型〗

(1) 탈 것(차, 버스, 기차)・건물・도로 등에 사람이나 물건이 가득 차 있다.

《文型》[장소・탈 것・물건] {が/は} ([사람・물건]で) 込む。

例) バスは乗客で込んでいた

道路が車で込む

映画館は大勢の客で込んでいた。

…… (省略) ……

〖慣用句〗手が込む：세공・기교 등이 치밀하다.

例) このケーキの飾り付けは手が込んでいる。

以上의 사전에 記述된 본동사「こむ」의 일반적인 의미는「(물건・사람 등이)가득 차다, 붐비다, 혼잡하다, 정교하다, 뒤얽히다」이다. 이것을 종합한 본동사「こむ」의 의미는 "어느 내부영역이 사람・물건 등의 이동으로 밀도가 높아져 농밀해지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以上의 사전들이 모두 自動詞「こむ」의 의미만을 記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래 본동사「こむ」는 他動詞의 의미기능도 갖고 있었다.

『広辞苑第五版』16)은 본동사「こむ」를 다음과 같이 自動詞와 他動詞로 구분하여 記述하고 있다.

こ·む【混む・込む】〖自動詞〗

내부로의 이동으로 사물이 얽혀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

こ·む【籠む・込む】〖他動詞〗

15) 小泉保 等 編(1989)『日本語基本動詞用法辞典』大修館書店
16) 新村出 編(1998)『広辞苑第五版』岩波書店

⇨こめる

주위가 단단하게 에워싸여진 공간에 무언가를 집어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

현대어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위와 같이 본동사「こむ」는 "어느 내부영역에 사물 등을 집어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他動詞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

宮地와 姫野는「こむ」가 他動詞로서 기능하는 용례가 옛 문헌『日葡辞書』17)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記述하였다.

"(イ) コミ、ム、ゥダ (籠・込み、む、うだ) 안에 집어넣다

(テッパウに薬を籠む) 대포에 탄환이나 탄약을 장치하다. 즉 장약하다.

(『日葡辞書』) ……省略……

「こむ」는 타동사적 표현도 갖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18)

"현대어의「こむ」는 自動詞로서만 기능하지만, 古語에서는 他動詞로서의 용법도 발견된다. 小学館『国語大辞典』(第1版)에는『日葡辞書』의 용례인「テッパウニクスリヲ comu(コム)」를 게재하고 있다. 복합어의 구성요소로서는 自・他 양용의 기능이 있으며, 「こむ」는広辞苑에 기술된 自두・他 의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근저에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9)

위와 같이 옛 문헌에 나타난「こむ」의 他動詞의 의미기능에 대해 宮地는 의문을 남겼을 뿐이지만, 姫野는 動詞「こむ」가 自・他動詞의 양용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複合動詞「~こむ」가『広辞苑第五版』이 記述하고 있는 自・他動詞의 두 의미를 모두 근저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筆者는 이러한 姫野의 견

17) 日本イエズス会가 長崎学林에서 1603年(慶長8)에 간행한 일본어ー포르투갈어의 사전
18) 宮地幸一(1985)、「活用表現論Ⅱ」『ある型動詞の諸相ー作家の表現を中心として』桜楓社
19) 姫野昌子(1999)、『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해에 동의하며, 古語에서 보여 지는「こむ」의 他動詞의 기능이 현대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壁にコンセントを植え込む。(벽에 콘센트를 박아 넣고 고정시키다)」와 같은 複合動詞의 후항「~こ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動詞「こむ」의 他動詞의 의미인 "어느 내부영역에 사물 등을 집어넣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과 "벽에 콘센트를 박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은 모두「고정」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전항동사「こみ~」의 의미

전항동사「こむ」는「こむ(イ形)+動詞」의 型을 일컫는다.「こむ」가 전항동사로서 사용되는 빈도는 후항동사「こ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아래의 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表4 森田良行(1978)의 전항・후항 複合動詞의 수>[20]

전항동사		
순위	동사	용례수
1	言う	122
2	思う	112
3	見る	109
3	引く	109
5	聞く	84
6	取る	73
7	書く	70
7	差す	70
9	立てる	65
10	吹く	61
11	切る	55
12	掻く	54

후항동사		
순위	동사	용례수
1	込む	130
2	付ける	79
3	合う	78
4	出す	74
5	付く	72
6	入る	69
7	上げる	66
7	立つ	66
9	立てる	55
10	切る	52
11	返す	48
12	取る	43

<表4>에서 후항동사로서는「こむ」가 1位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항동사로서의 「こむ」는 상위권 순위에도 들지 못한다. 그럼, 소수에 불과한 전항동사「こみ~」의 종류와 의미에 대하여 그 살펴보도록 하자.

20) 森田良行(1978)、「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講座日本語教育第14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森田(1978)가『岩波国語辞典』에 나와 있는 複合動詞를 전항동사와 후항동사로 나누어 조사한 사용빈도이다.

『日本国語大辞書』은 전항동사로서 사용되는「こむ」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8개를 제시하였다.

込み合う, 込み上げる, 込み出す, 込み入る
込み居る, 込み付く, 込み乗す, 込み乗る

그러나 이들 중「込み出す」,「込み居る」,「込み乗す」는 현대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옛 문헌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또『広辞苑』은 다음과 같이 6개를,『現代国語例解辞書』은 3개만을 들고 있다. 그리고「こむ」가 전항동사로서 사용된 複合動詞는 대체로, 動詞「こむ」의 自動詞의 의미인 '붐비다, 북적거리다', '뒤얽히다'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広辞苑 : 込み合う, 込み上げる, 込み入る, 込み居る, 込み付く, 込み乗る
現代国語例解辞書 : 込み合う, 込み上げる, 込み入る

例)いろいろと、込み入った事情です = いろいろと、込んだ事情です
電車が込み合う = 電車が込む

이렇듯 전항동사로서의「こむ」의 사용 비중은 후항동사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こむ」를 후항전용동사라고 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따라서 본고는 후항동사「~こむ」에 초점을 두어 고찰하고자 한다.

3. 후항동사「~こむ」와 결합하는 전항동사

본 장에서는「~こむ」의 의미적인 측면의 분석에 앞서 複合動詞「~こむ」가 어떠한 종류의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그 결합조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景山의 動詞의 분류법에 따라「~こむ」가 어떠한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검토하고, 둘째로 金田一春彦의「動詞四分類法」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3.1 自・他動詞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語構成에 있어서 自動詞는 自動詞와 他動詞는 他動詞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단,「~始める」,「~続ける」와 같은 アスペクト(動詞의 相)와 관계있는 후항동사는 제외된다.[21]) 그러나 姫野를 비롯한 선행연구는 다른 動詞와 다르게 自動詞「こむ」가 自・他動詞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앞 장의「こむ」의 의미에서 서술하였듯이, 古語에서만 보여 지던 他動詞「こむ」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현대어의 후항동사「~こ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新版日本語教育事典』는 動詞를 文의 述語를 형성하며 다른 성분을 요구하고 종속시키는 지배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動詞는 述語로서 文을 형성할 때, 자기 자신이 나타내는 작용・상태 등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格조사를 동반한 명사구의 문형을 취하는가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갖는 動詞가 각각의 文의 의미특징에 따라 필요한 명사구를 선택적으로 요구하는 이와 같은 작용을「動詞의 格支配」[22]라고 한다. 예를 들면, 動詞「流れる」는「川が流れる」와 같이 ガ格 명사만으로 文을 완성시키지만,「流す」는「工場が汚水を流す」와 같이 ガ格 명사와 ヲ格 명사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내부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複合動詞「~こむ」가「ニ」格 명사구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姫野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景山에 의하면「~付く」와 같은 複合動詞는 전항동사가 요구하는 格을 제한

---

21) 姫野昌子(1999)、『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22) 社団法人 日本語教育学会(2005)『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하고 자기 자신이 필요로 하는 格 성분만을 명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23]

例：犬が飼い主に 付く　/ *犬が飼い主を 噛み 付く。

*犬が飼い主を手に 噛み 付く。

그러나「~こむ」는「~付く」와는 다르게 전항의 格을 제한하지 않으며, 전항의 格과 후항「~こむ」의 格을 동시에 한 문장 안에 명시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景山가 언급한대로 전항동사의 格이「~こむ」의 格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함께 공존하는지 용례의 조사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후항동사에 접속하는 전항의 종류를「他動詞」,「非能格自動詞」,「非対格自動詞」[24]의 세 종류로 나누어 複合動詞의 의미특징을 분석한 景山의 동사분류법을 이어받아「~こむ」가 이 세 종류의 모든 전항동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景山는 보통 '완전히~하다'라는 의미의 程度性을 나타내는「~こむ」를「補文關係」로 취급하고 이 분류에서 제외를 시키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우, 즉 內部移動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筆者 또한「ニ」格 명사구를 동반하는 複合動詞「~こむ」가 전항동사의 格을 제한하는지, 또는 공존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므로,「ニ」格 명사구를 동반하지 않는 程度性을 제외하고 內部移動에 한정하고자 한다.

3.1.1 他動詞 + こむ

다음은 複合動詞「~こむ」와 결합하는 他動詞의 예이다.

---

23) 影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24) x를 외항(=主語), y를 內項(=目的語)으로 하면, 非能格自動詞는 他動詞와 같이 주어를 외항으로 취한다. 그러나 非対格自動詞는 주어를 내항으로 한다.

他動詞：　(x <y>)　例：折る, 歩く, 走る

非能格自動詞：　(x < >)　例：さわぐ, 割る, 読む

非対格自動詞：　(　<y>)　例：折れる, 割れる

(1)派遣先に子供を 連れ 込むなんて、前例のない措置なんだよ。 (博士 p.164)

(2)首になったのもかかわらず、子供を義弟(ぎてい)の元に 送り 込むのは、何か意図がおありに

なってのことなのかどうか、という問題なのです。 (博士 p.184)

(3)ようやくつかみかけた手がかりを失ったことは、ふたたび立ち上がれないような脱力

感の中に、二人を 叩き 込んだ。 (人間 p.270)

(4)携帯電話サイトの掲示板に行動や気持ちなどを 書き 込んでいた。 (朝日)

용례 (1)은 내부이동의 複合動詞「~こむ」가 이동방향을 나타내는「ニ」格 명사구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전항동사「連れる」는 他動詞로서, 對象인「子供(아이)」를 나타내는「ヲ」格 명사구「子供を」를 문장 안에 명시하고 있다. (2)~(4)도 똑 같이「~こむ」의「ニ」格이 전항동사가 요구하는「ヲ」格과 함께 한 문장 안에 공존하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전항동사의 格이 후항동사「こむ」의 格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한 文章 안에 동시에 명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 위 용례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후항「~こむ」가 나타내는 이동대상과 전항동사의 目的語인 (1)「子供(아이)」, (2)「子供(아이)」, (3)「二人(둘)」, (4)「行動や気持など(행동이나 기분 등)」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他動詞 +こむ」의 구조의 複合動詞에는 전항의 목적어와 후항「こむ」의 이동대상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3.1.2 非能格自動詞+こむ

우선 생소한 용어인「非能格自動詞」와「非対格自動詞」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景山에 따르면 이 구분에는 統語的인 측면과 의미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 統

語的인 측면의 설명은 생략하고 의미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하면, 非能格은 의도적으로 동작을 행하는 동작주를 主語로 취하는 自動詞를 말한다. 그리고 의도를 갖지 않고 수동적으로 事象에 관계하는 對象을 主語로 취하는 自動詞를 非対格이라 한다.「駆ける」,「座る」,「泊まる」등과 같은 動詞는 행위자의 의식적 선택에 의해 그 행위를 행하는 의지동사이다. 이와 같은 의지를 갖는 動詞를「非能格自動詞」라고 한다. 다음은 複合動詞「~こむ」와 결합하는 非能格自動詞의 예이다.

(5)私は彼女が人のものを盗むとは思えなかったが、長い間会社勤めをしていると、それこそ陳腐(ちんぷ)な表現だが『魔がさす』としかいいようのないものが心に 忍び 込む瞬間があることも知っている。 (図書 p.58)

(6)大韓航空のソウル便に 乗り 込む 乗客。 (朝日)

(7)目に白い文字が 飛び 込んでくる。 (図書 p.242)

위 용례의「忍ぶ」,「乗る」,「飛ぶ」는「主体が~(場所)に~する(주체가~(장소)로~하다)」의 문형 구조를 갖는 動詞들이다. 이들은 자체 이동의 의미를 갖는 動詞이며,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ニ」格 명사구를 요구한다. 후항동사「~こむ」가 이동해 가는 방향과 전항동사의 이동방향은「心(마음)」,「ソウル便(서울행 편)」,「目(눈)」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전항・후항동사의 格은 하나의「ニ」格으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他動詞+こむ」와 똑 같이 한 문장 안에 각각의 格 성분이 명시되고 있는 樣相이다. 그러나「他動詞+こむ」구조의 複合動詞와는 다르게,「非能格自動詞+こむ」구조의 複合動詞는 후항「~こむ」의 이동대상과 전항동사의 주어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 예문 (5)~(7)에서 후항「~こむ」의 이동대상「『魔がさす』としかいいようのないもの(『마가 끼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乗客(승객)」,「白い文字(하얀 글자)」와 전항동사의 主語「『魔がさす』としかいいようのないもの(『마가 끼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乗客(승객)」,「白い文字(하얀 글자)」가 동일하다.

(8)室内に 躍り 込む。 (広辞)

(9)うるさいと隣家に 怒鳴り 込む。 (広辞)

(8)의「躍る」와 (9)의「怒鳴る」는「~が~する(~가~하다)」의 문형 구조를 갖는 動詞로 후항동사「~こむ」가 요구하는「ニ」格 명사구만이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위 예문의「躍る」,「怒鳴る」는 본래 ガ格 이외의 다른 格 명사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전항과 후항의 각 동사가 요구하는 格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예문 또한 전항의 主語와 후항「~こむ」의 이동대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以上으로 非能格自動詞의 전항과 후항「~こむ」가 결합하는 경우, 후항「~こむ」의 이동대상과 전항의 의도적 동작주(주어)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1.3 非対格自動詞＋こむ

非対格自動詞를 의미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또는 현상을 나타내는 動詞이다. 그리고「무의지동사가 이에 해당하며, 동작・작용의 主體가 자연・무생물 등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과 주체가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라도 주체의 의지가 그 동작에 미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流れる」, [溶ける」,「覚める」등이 이에 속한다.」[25] 다음은 非対格自動詞와 후항「~こむ」가 결합하는 예이다.

(10)皆が普段は忘れているけど気が付くとどっぷり肌に 染み 込んでいるあの雰囲気を。 (図書 p.228)

25) 新美和昭 等 共著(1987)、『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4 複合動詞』荒竹出版

(11)それと入れ替わるようにして、るり子は素早く玄関に 滑り 込んだ。　　(肩 p.75)

(12)まだ長袖は手放せないが、いくらか青が深まって、

上空にはもう南からの風が流れ 込んでいるのが感じられる。　　(肩 p.105)

위 용례에 나타난 (10)은「~が~に~する(~가~(에)으로~하다)」의 문형 구조를 갖는 動詞이다. 후항「~こむ」가 요구하는「ニ」格과 전항동사가 요구하는 格 성분이 동일하므로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11), (12)의 전항동사「滑る」,「流れる」는「~が~する(~가~하다)」의 문형 구조를 갖는 動詞이며,「~こむ」가 요구하는「ニ」格 명사구만이 단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非対格自動詞의 전항 또한 후항「~こむ」의 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후항「~こむ」의 이동대상과 전항동사의 主語가 동일하다.

以上으로, 複合動詞「~こむ」가 他動詞, 非能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모든 自・他動詞와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항 및 후항동사가 요구하는 각각의 格 성분이 서로 제한받지 않고 한 문장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동사+동사」型의 대부분의 複合動詞는「~こむ」와는 다르게 그 결합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결합의 제한을 받는 예로는「~落とす」등이 있다.「落とす」는「洗い落とす, 流し落とす」와 같이 他動詞와는 결합하지만, 非対格自動詞와는 결합하지 않는다(＊流れ落とす).[26] 반면,「~こむ」는 他動詞, 非能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景山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こむ」를「他動性調和の原則」의 예외적인 사례로 보았다.

26) 景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3.2 動詞의 四分類法에 의한 분류

본 절에서는 複合動詞「~こむ」가 어떤 종류의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항동사를 金田一春彦[27]의「動詞四分類法」에 따라 분류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金田一春彦의「動詞四分類法」이란 動詞를「~テイル」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취할 경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다만, 하나의 動詞가 두 종류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미리 명시해 둔다.「動詞四分類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継続動詞 :「~テイル」형태를 취한다.

동작・작용이 어느 시간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을 나타낸다.

例)読む, 書く, 笑う, 見る, 聞く, 食べる, 泣く, 泳ぐ　散る、降る 등

(2) 瞬間動詞 :「~テイル」형태를 취한다.

동작・작용이 순간적으로 종료하여 그 결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例)死ぬ, 終わる, 届く, 出発する, 到達する, 止む, さわる, とどく,
(電灯が)点く/消える,　決まる, 見つかる, はじまる, おわる 등

(3) 状態動詞 :「~テイル」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동작・작용을 나타낸다기보다 오히려 상태를 나타낸다. 보통 시간을 초월한 관념을 나타내는 動詞이다.

例)ある, いる, (可能の)できる, 要する, 値する, 分かる, 見える 등

(4) 第四類動詞 : 보통「~テイル」형태로 사용된다.

시간의 관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状態動詞와 같지만, 어떠한 상태를 지니는 것을 나타내는 動詞이다.

---

27) 金田一春彦(1976)『日本語のアスペクト』、むぎ書店

例)そびえる，すぐれる，おもだつ，ずばぬける，ありふれる，ばかげる，
高い鼻をする，似る 등

3.2.1 継続動詞 +「こむ」

複合動詞「~こむ」가 継続動詞의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입해 보았다.

継続動詞	書く	聞く	見る	待つ	読む	降る
결　　합	+	+	+	-	+	+

(+)는 결합하는 경우, (-)는 결합하지 않는 경우

(13)叔父は真剣になって考えていたが、やがて波打ち際から水路を引いて、常に水が流れ込む濡れた窪(くぼ)みを作り、そこで砂を調達して城を作る方針にした。 (図書 p.120)

(14)これを他人に見られるのが嫌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勝手に思い込んでいた。 (博士 p.242)

(15)何時まで待っても際限がないとでも思ったものか、 (道草)

*(15)'何時まで待ち込んでも際限がないとでも思ったものか、

위의 용례를 통해 継続動詞는 複合動詞「~こむ」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継続動詞가「~こむ」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며 *「待ちこむ」와 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항동사의 동작・작용에「~こむ」의 결합은 내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진행의 의미를 첨가시키고 있다. 다음은「~こむ」와 결합하는 継続動詞의 예이다.

上がりこむ　打ちこむ　押しこむ　落ちこむ　思いこむ　躍りこむ　書きこむ　駆けこむ　考えこむ　聞きこむ　転がりこむ　さし込む　剃りこむ　刈りこむ　着こむ　食いこむ　吸いこむ　滑りこむ　黙りこむ　流しこむ　飛びこむ　泣きこむ　縫い込む　飲みこむ　話しこむ　走りこむ　引きこむ　吹きこむ　拭きこむ　降りこむ　回りこむ　見こむ　読みこむ　등

3.2.2 瞬間動詞 +「こむ」

複合動詞「~こむ」가 瞬間動詞의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입해 보았다.

瞬間動詞	死ぬ	折れる	着こむ	座る	止む	殴る
결　　합	-	+	+	+	-	+

(+)는 결합하는 경우, (-)는 결합하지 않는 경우

(16)何だかその様子が面白くて、わざと黙り込むと、まだ足りないと思ったのか、信之は喋り続けた。　(肩 p.133)

(17)落ち込んだ彼の眼はその底で常に反対の何物かを語っていた。　(道草)

(18)そこで、そうかね、もう死ぬのかね、と上から覗き込むようにして聞いて見た。(夢)

*(18)'そこで、そうかね、もう死に込むのかね、と上から覗き込むようにして聞いて見た。

瞬間動詞도 複合動詞「~こむ」와 결합하나, 모든 종류의 瞬間動詞와 결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こむ」와의 결합으로 複合動詞 전체는 내부로의 이동의 의미를 첨가하게 된다. 다음은「~こむ」와 결합하는 瞬間動詞의 예이다.

入りこむ　落ち込む　かがみ込む　着こむ　切りこむ　折れこむ　しゃがみこむ　座りこむ　倒れ込む　立ちこむ　付けこむ　つっこむ　殴りこむ　眠りこむ　填め込む　등

3.2.3 狀態動詞 / 第四類動詞 +「こむ」

複合動詞「~こむ」가 狀態動詞, 第四類動詞의 전항동사와 결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입해 보았다.

狀態動詞	ある	もつれる	できる	分かる
결　　합	-	-	-	-
第四類動詞	優れる	そびえる	ありふれる	似る
결　　합	-	-	-	-

(+)는 결합하는 경우, (-)는 결합하지 않는 경우

＊(19) 雲の上にそびえ込んだ山々。

＊(20)彼は晩年にあり込んだ。

＊(21)文学が分かり込む。

複合動詞「~こむ」는 위와 같이 시간의 관념을 초월한 狀態動詞나 第四類動詞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以上의 결과를 통해 複合動詞「~こむ」는 継続動詞, 瞬間動詞의 전항동사와는 잘 결합하지만, 狀態動詞, 第四類動詞와는 잘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自・他動詞의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動詞와 結合하여 많은 複合動詞를 구성하는 조어력 높은「~こむ」이지만, 모든 종류의 動詞와 결합하지는 않는다.

4. 후항동사「~こむ」의 의미

앞 장의 <表0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항동사「~こむ」는 여러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많은 복합동사를 구성하고 있다. 먼저 후항동사「~こむ」의 의미를 여러 사전에 게재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여 보자. 참고로, 후항「~こむ」의 종류는 姫野에 의하면 285語, 筆者가『広辞苑第五版』에 게재된 수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196語이다. 공통된 語를 제외하고 모두 합하면, 총 314語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 314語를 후항동사「~こむ」에 포함시켜 考察하기로 한다.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28]는「~こむ」를 "ⓐ'무언가의 안에 집어넣다'라는 의미의 他動詞를 만들거나, ⓑ'무언가의 안에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自動詞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철저하게, 완전히~하다'라는 의미의 動詞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例) ⓐここに名前を<u>書き込んで</u>ください。(여기에 이름을 기입해 주세요.)
ⓑその客は家に<u>上がり込んで</u>、もう5時間も帰らない。
(그 손님은 집 안에 들어가, 벌써 5시간 째 돌아가지 않고 있다.)
ⓒ友だちと<u>話し込んで</u>いたらいつのまにか朝になっていた。
(친구들과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더니 어느새 아침이 되었다.)

『基礎日本語辞典』[29]은 "다른 動詞나 名詞에 붙어 그 對象이 어떠한 경우나 狀況・狀態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또는 들어가는 뜻을 첨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動作이나 狀態를 이어받아 어떠한 狀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プールに飛び込む(수영장에 뛰어들다.)」와 같이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와「じっと考え込む(꼼짝 않고 골똘히 생각하다.)」와 같이 그 動作・狀態가 보다 깊은 영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문형적으로는「~こむ」가 붙어 他動詞가 되는 것과 自動詞로서 기능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28) グループ・ジャマシイ編著(1998)、『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29) 森田良行　著(1989)『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또『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4　複合動詞』30)는「～こむ」의 기본의 미를「狭い所がすきまなく、ぴったりつまる(좁은 공간이 빈틈없이 꽉 차다)」로 記述하고 있다. 그리고「こむ」는 본래 自動詞이지만 V_1(전항동사)이 他動詞인 경우, 이 複合語 전체는 他動詞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食い込む, 立て込む」등과 같이「他動詞＋込む→自動詞」인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하므로, 후항동사「～こ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広辞苑第五版』31)은 후항동사「～こむ」를 어떻게 記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다른 동사의 연용형에 붙어)
① 何かの中に入る、または、入れる意を表す。「飛び込む, 金を振り込む」
무언가의 속에 들어가다 또는 집어넣는 것을 의미. 「뛰어들다. 돈을 불입하다.」
② すっかりそうなる意を表す。「老い込む, 信じ込む, ふさぎ込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 「폭삭 늙다, 완전히 믿다, 매우 우울해하다.」
③ みっちり、または十分にそうする意を表す。「教え込む, 鍛え込む, 煮込む」
철저히 또는 충분히 행하는 것을 의미.「골똘히 생각하다. 충분히 단련하다. 푹 익히다.」

以上의 사전에 나타난 의미와 앞 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후항동사「～こむ」의 의미를 종합하면 ①主體 또는 對象이 어떤 내부영역 속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시키는 것, ②어느 내부영역으로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을 완전히 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고는 ①을 姫野가 명명한「内部移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며, ②를「程度性」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후항동사「～こむ」가 실재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용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30) 新美和昭 等 共著(1987)、『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4　複合動詞』荒竹出版
31) 新村 出 編(1998)、『広辞苑第五版』岩波書店

(22)離れの問題を母屋に持ち込むな、という命令を忠実に守ってきました。(博士 p.165)

(23)そこに後方からゴールに向かって一直線に走り込んだ三浦がアタマから飛び込み、ゴール！ (朝日)

(24)自分のせいで母親たちが争っているとルートが思い込んでしまわないか怖れていた。(博士 p.199)

(25)会社を辞めて垂れ込む。 (朝日)

용례 (22)의「持ち込む」는「離れの問題(바깥일)」라는 사항(對象)을「母屋(안채)」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즉, 외부영역에서 내부영역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23)의「走り込む」는 主體의「三浦(미우라 선수)」가 골을 향해 달려가는 신체의 내부이동을 나타낸다. (24)의「思い込む」는 전항의 작용이 자기 자신의 내부방향으로 깊이 진행된 결과, 실제는 그렇지 않으나 다른 방향으로 思考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적인 상태를 초래한다. (25)는 전항과 후항의 의미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파악이 어려운 복잡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로 '비밀로 정보를 제공하다/밀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위의 용례는 모두 후항동사「~こむ」의 대표적인 의미용법인「內部移動」의 의미를 근저에 포함하고 있지만, 각각의 의미기능은 조금씩 다르다. 본고는 (22), (23)과 같이 전항의 動作・作用을 목적이나 방법으로 하여 어느 내부영역으로 이동하는 가장 단순한 의미 구조를「內部移動」이라 부른다. (24), (25)는 전항의 動作・作用이 어느 내부영역으로 완전히 진행하여 程度의 강도를 나타내는 예이며「程度性」이라 부른다. 그리고 필자는「程度性」을 다시 의미구조에 따라 두 종류로 세분화하여, 보통 '완전히~하다'의 의미로 나타나는 (24)과 같은 종류를「程度進行A」, "전항이 나타내는 動作・作用의 程度의 진행이 심화된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는 것"의 (25)와 같은 종류를「程度進行B」라고 칭하기로 한다.

以上의 선행연구 및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內部移動」을 후항동사「~こむ」의 기본의미로 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程度性」은「內部移動」의 의미를 근저에 두고 의미가 파생된「內部移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아

래의 表는 본 장의 연구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며, 본고는 후항동사「~こむ」를 복합동사「~こむ」또는「~こむ」로 함께 표기한다.

<表5 複合動詞「~こむ」의 의미 분류>

内部移動 (기본의미)	程度性 (의미파생)	
	程度進行A	程度進行B
	고정・농밀・누계	새로운 의미 첨가
「ニ」格을 동반	「ニ」格을 동반하지 않음	
電車に走り込む 川に落ち込む	走り込んで足腰を鍛える 収入が落ち込む	気分が落ち込む 警察に垂れ込む

4.1 内部移動의「~こむ」

複合動詞「~こむ」중 대부분은 主體 또는 對象이 어떤 영역 속으로 이동해 가는 内部移動을 나타낸다. 그리고「~こむ」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内部移動의 의미를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로 규정한다. 姫野[32]는 複合動詞「~こむ」의 内部移動을「閉じた空間(닫힌 공간)」,「固体(고체)」,「流動体(유동체)」,「隙間のある集合体または組織体(빈틈 있는 집합체 또는 조직체)」,「動く取り囲み体(움직이는 덩어리)」,「自己の内部(自己凝縮体)(자신의 내부)」,「その他(그 외)」의 7가지로 나누고, 主體의 이동을 나타내는 自動詞와 對象의 이동을 나타내는 他動詞로 분류하였다. 본고는「~こむ」가 나타내는 의미인 内部移動의 영역 범위, 즉 主體 또는 對象의 이동해 가는 영역이 물리적 영역과 추상적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한정하기로 한다.

4.1.1 물리적 이동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인 内部移動은「내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이동과 관계하는 것이라면, 영역의 경계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이동방

32) 姫野昌子(1999)、『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향은「외부에서 내부의 영역으로」,「내부에서 또 다른 내부의 영역으로」이다. 複合動詞「~こむ」는 전항의 동작・작용에 따라 이동의 영역과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의 속(안)에 들어가다 또는 집어넣다'라는 내부로의 이동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6)「忘れ物や客のポケットから転がり落ちた小物は、たいていその中に もぐり込んでいますので」 (人間 p.208)

(27)自分は敷居から一歩なかへ足を踏み込んだ。 (永日)

(28)人々は、石造りの建物の窓べにスミレの鉢(はち)を飾ったり、美しい模様を織り込んだ布を垂らしたりして、行く先々の人々の目を楽しませる工夫をしている。 (図書 p.198)

(29)ほんのちょっとしたことに傷ついて、それを旗印みたいに揚げて、ぬくぬくした場所に 逃げ込もうとする。 (肩 p.263)

위 용례 (26)의「もぐり込む」는 主體「小物(동전)」이「その中(그 속)」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사물의 물리적 이동이다. (27)의「踏み込む」는 對象「足(발)」을 문지방 안으로 내딛는 신체의 물리적 이동이다. (26)은 主體의 이동으로 複合動詞「~こむ」가 自動詞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27)은 對象의 이동으로 他動詞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26), (28), (29)는 각각 主體 또는 對象의 이동해 가는 방향을「ニ」格을 동반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7)은「ニ」格이 아닌「へ」格을 동반하여 이동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ニ」・「へ」格에 대해『新版日本語教育事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北海道に行った(홋카이도에 갔다)」,「北海道へ行った(홋카이도에 갔다)」와 같이 도달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ニ」도「へ」도 사용할 수 있다. 「行く」이외에 「移る」「帰る」「寄る」「向かう」등, 방향성을 갖고 主體의 이동을 나타내는 動詞에서는 「ニ」,「へ」어느 쪽도 사용할 수 있다. 또「海{に/へ}土砂を捨てる(바다에 사토를 버리다)」「沖縄{に/へ}手紙を送る(오키나와로 편지를 보내다)」등 對象物이 방향성을 갖고 이동하는 경우도 둘 다 사용 가능하다." 33)

33) 社団法人 日本語教育学会(2005)『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이와 같이「へ」格은「ニ」格과 똑 같이「~(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以下의 본고에서는「へ」格과 「ニ」格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한다.

(30)五、六年も前のことだろうか、夜中に泣きながら転がりこんできて、せがまれるままに抱いた。 (男 p.120)

(31)返事を待たずにリカコはベッドをおりると、バスタオルを巻いた。ステンレス扉の小型冷蔵庫にかがみこむ。 (男 p.79)

(32)中込が一球ストライクを投げ込むだけで、歓声が沸き起こった。 (博士 p.146)

(33)横丁(よこちょう)を見つけていると、細い路次(ろじ)のようなのが一つあった。人に押されて入り込むと真暗である。 (永日)

위 용례 (30)~(33)은 複合動詞「~こむ」의 이동해 가는 방향이 文에 나타나 있지 않는 물리적 이동으로,「ニ」格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 (30)는 對象이 주체자신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31)과 (32)는 主體가 주체자신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나 그 이동방향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主體 또는 對象의 이동해 가는 영역이 주체자신의 방향일 경우는 문장 안에 표기하지 않아도 문맥의 흐름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30)이 나타내는 내부이동의 방향은 문장 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화자자신의 방향이라는 내부이동의 영역과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31)은 이동영역을「冷蔵庫(냉장고)」로 잘못 인식하기 쉬우나,「かがみこむ」의 이동방향은「リカコ(리카코)」의 신체영역이다.「リカコ(리카코)」가 자기 자신의 몸의 안쪽 방향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한다.「冷蔵庫(냉장고)」를「かがみこむ」가 나타내는 이동영역으로 인식하면,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용법에 위반하게 된다.「冷蔵庫(냉장고)」가「~こむ」의 이동방향으로 성립하려면, “小型冷蔵庫の中に野菜や肉などを入れ込む(소형냉장고 안에 야채와 고기 등을 집어넣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32)의「投げ込む」의 動作을 ‘내부 측에서 외부 영역으로의 이동’으로 판단할지 모르나, 스트라이크를 던진 것은 자신이 소속해 있는 팀의 승리와 연관되는 행위이므로「投げ込む」또한 내부이동

을 나타낸다. (33)은 이동의 영역이 주체자신의 방향이 아니지만, 이동방향을 나타내는「ニ」格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앞 문장의「細い路地(길고 좋은 통로)」가「入り込む」의 이동영역이라는 것을 문맥의 흐름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된 예이다. 즉 內部移動의 의미를 나타내는「~こむ」가 이동방향을 명시하는「ニ」格 명사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이동방향이 주체자신일 경우 또는 전후 문맥의 흐름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경우이다.

4.1.2 추상적 이동

複合動詞「~こむ」가 나타내는 내부이동의 영역 범위는 심리적・시간적 영역은 물론 인간의 인지・사고 작용에 관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즉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정신적 영역까지도 내부이동의 主體 또는 對象이 될 수 있다. 이동방향은 물리적 이동과 동일하게「외부 측에서 내부의 영역으로」,「내부 측에서 또 다른 내부의 영역으로」이다.

(34)枕に耳を押し付けて何度も語りかけているうちに暗い眠りの中へ　落ち込んでいくのである。 (人間 p.291)

(35)恭平(きょうへい)は、熊の縫いぐるみをリュックに入れて遠足に行った屈辱(くつじょく)を胸に　刻みこんで忘れない。 (人間 p.65)

(36)生活保護費に含まれた授業料を使い込む親もいるため、支給日には担任が市役所に付き添うことも。 (朝日)

(37)午前１１時ごろ、多額の現金を持った中年の夫婦が「息子に金を振り込む」と窓口に来た。 (朝日)

(34)의「落ちこむ」는 눈에 보이지 않는「暗い眠りの中(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추상적 영역의 이동이다. 그리고 이「落ちこむ」의 이동영역은 (34)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영역이 될 수도 있지만, “川に落ちこむ(강에 빠지다)” 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영역이 될 수도 있다. (35는 對象인「屈辱(굴욕)」을 정신적 영역인「胸(가슴)」에 아로새기는 추상적 이동이다. (36), (37) 또한 각각 對象인「授業料(수

업료)」를 자신의 것으로,「現金(현금)」을「息子の通帳(아들의 통장)」으로 이동시키는 추상적 내부이동이다. 그리고 (34)는「へ」格을 (35), (36)은「ニ」格을 동반하고 있으며, (37)은「自分の方のために(자신을 위하여)」라는 방향이 생략된 용례이다. 이와 같이「ニ」・「へ」格은 複合動詞「~こむ」가 나타내는 內部移動의 방향을 명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영역의 형태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內部移動을 나타내는「~こむ」의 종류를 自動詞와 他動詞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表6 內部移動의 複合動詞「~こむ」: 自動詞>

【 Xが Yに ~こむ / Xが ~こむ 】의 文型
上がりこむ　勢いこむ　落ちこむ　駆けこむ　転がりこむ　転げこむ　滑りこむ　飛びこむ　にじりこむ　這いこむ　這いずりこむ　走りこむ　入りこむ　入りこむ　移りこむ　忍びこむ　潜りこむ　引っこむ　すっこむ　乗りこむ　さまよいこむ　舞いこむ　くぐりこむ　迷いこむ　倒れこむ　繰りこむ　ひょろけこむ　もつれこむ　よろけこむ　暴れこむ　躍りこむ　ふんごむ　回りこむ　散りこむ　割りこむ　はまりこむ　しけこむ　張りこむ　ずれこむ　拝みこむ　泣きこむ　ねじこむ　攻めこむ　怒鳴りこむ　殴りこむ　切りこむ　逃げこむ　住みこむ　泊まりこむ　座りこむ　照りこむ　照らしこむ　差しこむ　吹きこむ　降りこむ　注ぎこむ　流れこむ　食いこむ　のめりこむ　めりこむ　漬かりこむ　溶けこむ　ひたりこむ　沈みこむ　染みこむ　混じりこむ　紛れこむ　埋まりこむ　埋もれこむ　くぼみこむ　くびれこむ　落ちこむ　崩れこむ　かがみこむ　こごみこむ　うつむきこむ　しゃがみこむ　へたりこむ　まくれこむ　めくれこむ　折れこむ　曲がりこむ　はげこむ　切れこむ　立ちこむ　縮みこむ　押っこむ　言こむ　鳴りこむ　にえこむ　ぬめりこむ　のめずりこむ　もたれこむ

<表7 內部移動의 複合動詞「~こむ」: 他動詞>

【 Zを Yに ~こむ / Zを ~こむ / Yに Zを~こむ / Zを Aと ~こむ 】의 文型
担ぎこむ　運びこむ　蹴りこむ　はたきこむ　放りこむ　投げこむ　弾きこむ　掃きこむ　振りこむ　打ちこむ　ぶちこむ　ぶっこむ　ひねりこむ　ねじこむ　ねじりこむ　叩きこむ　汲みこむ　掬いこむ　持ちこむ　積みこむ　盛りこむ　填めこむ　封じこむ　吹きこむ　入れこむ　繰りこむ　たぐりこむ　引きこむ　引き摺り

こむ　引っ張りこむ　取りこむ　しまいこむ　釣りこむ　掻きこむ　掻こむ　かっこむ　射こむ　押しこむ　詰めこむ　落としこむ　差しこむ　突きこむ　突っこむ　追いこむ　注ぎこむ　つぎこむ　たらしこむ　流しこむ　飲みこむ　吸いこむ　すすりこむ　食らいこむ　受けこむ　含みこむ　借りこむ　買いこむ　聞きこむ　習いこむ　誘いこむ　呼びこむ　招じこむ　招きこむ　連れこむ　払いこむ　売りこむ　送りこむ　教えこむ　頼みこむ　せがみこむ　隠しこむ　ためこむ　たくわえこむ　削りこむ　刻みこむ　絞りこむ　ふるいこむ　こすりこむ　擦りこむ　なすりこむ　塗りこむ　まぶしこむ　揉みこむ　練りこむ　植えこむ　埋めこむ　うずめこむ　彫りこむ　書きこむ　描きこむ　刷りこむ　写しこむ　鋳こむ　漬けこむ　溶かしこむ　溶きこむ　浸しこむ　沈めこむ　混ぜこむ　編みこむ　織りこむ　縫いこむ　組みこむ　炊きこむ　詠みこむ　歌いこむ　握りこむ　丸めこむ　包みこむ　抱きこむ　抱えこむ　くるみこむ　囲みこむ　履いこむ　敷きこむ　巻きこむ　挟みこむ　綴じこむ　加えこむ　頬張りこむ　着こむ　かぶりこむ　履きこむ　背負いこむ　しょいこむ　着せこむ　かぶせこむ　かがめこむ　押さえこむ　まくりこむ　めくりこむ　折りこむ　折り畳みこむ　曲げこむ　畳みこむ　絞りこむ　刈りこむ　切りこむ　すきこむ　剃りこむ　えぐりこむ　使いこむ　覗きこむ　見こむ　当てこむ　張りこむ　打ちこむ　埋けこむ　居こむ　押いこむ　置きこむ　下ろしこむ嗅ぎこむ　締めこむ　畳みこむ　搗きこむ　築きこむ　作りこむ　撮みこむ　蹴こむ　せこむ　染めこむ　結いこむ　　召しこむ

4.2 程度性의「～こむ」

본고는 程度性을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内部移動을 근저에 두고 의미가 확장한 의미파생으로 본다. 程度性은 어느 내부영역으로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완전히 진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程度性을 나타내는 複合動詞「～こむ」는 内部移動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이 의미용법이 갖는 의미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筆者는 이 程度性을 다시 程度進行A와 程度進行B로 세분화하여 그 의미특징을 분석하고자한다. 程度進行A는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심화되어 고조된 의미를 나타내는 것, 程度進行B는 程度의 진행이 심화된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는 것을 가리킨다. 대체적으로 기존의 연구는 程度進行B와 같이 程度의 심화로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는 複合動詞를 단순히 程度性에 포함시켜 程度進行A와 함께 통합하여 다루고

있지만, 筆者는 이것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특징을 명백히 구분하고자 한다.

4.2.1 程度進行A

程度性의 첫 번째 의미용법인 程度進行A를 용례분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38)今夜はだいぶ冷え込むようです。暖かくしてお休みください。 (複合)
(39)すっかり話し込んでしまったわ。もう帰らなければ。 (複合)
(40)徹底的に読み込むことによって、色々なものが吸収できます。 (朝日)

위의 用例는 모두「だいぶ(꽤)」,「すっかり(완전히)」,「徹底的に(철저하게)」와 같은 강한 程度를 나타내는 수식어를 동반하고 있다. 위에 나타난 副詞 등의 수식어는 程度進行A가 나타내는 강조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킨다. 즉, 複合動詞「~こむ」앞에 위치하여 複合動詞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程度進行A를 나타내는 위의 用例는 모두「ニ」格 명사구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內部移動」의「~こむ」와「程度進行A」의「~こ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이동방향을 나타내는「ニ」格을 동반 하는가 동반하지 않는가 하는「ニ」格의 동반여부이다. 더 다양한 용례를 통해 程度進行A의 의미특징에 관하여 알아보자.

(1) 고정

①倉庫の奥で眠っていた。
②倉庫の奥で眠り込んでいた。

①, ②의「眠る」,「眠り込む」는 둘 다 똑 같이 깨어 있는 狀態에서 잠드는 狀態로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②의「眠り込む」는 전항인「眠る」의 作用의 程度가 깊이 진행되어 '완전히 푹 잠들다'라는 狀態에 이르고, 그 狀態가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고정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①의「眠る」와 차이를 보인다.

(41)彼に踏まれて、痛そうに眉をしかめながら、うす目を開いたが、寝返りを打って、ま

た眠りこんでしまった。 (人間 p.58)

(42)冬の訪れと共に彼は塞ぎ込むようになった。 (図書 p.102)

(43)るり子はしばらく考え込んだが、すぐにそんなことは無駄だと悟(さと)ったらしく、話を元に戻した。 (肩 p.119)

(44)すべてを忘却してぐっすり寝込むような功徳である。 (草)

(45)これは自分のための人生だとかたくなに信じ込んでいた。 (人間 p.413)

(42)는 완전히 우울해하는 狀態가 (43)은 골똘히 생각하는 狀態가 당분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고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44), (45)도 동일하게 고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위의 모든 용례는 어는 내부영역으로 전항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진행되는 程度進行A의 예이며,「고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위 용례에 나타나듯「~こむ」의 後部에「~してしまった(~하고 말았다)」,「~ようになる(~와 같이 되다)」,「~している(~하고 있다)」등의 形이 자주 나타나며, 이들은 대체로 마이너스적 느낌이 동반되고 있다.

그리고 (41)~(45)가 나타내는「고정」의 의미요소는 古語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본동사「こむ」의 他動詞의 의미인 "어느 내부영역에 사람・물건 등을 이동시켜 고정시키는 것"으로, 他動詞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현대어의 후항동사「~こ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농밀

①夜になって急に冷えてきた。

②夜になって急に冷え込んできた

①, ②의「冷える」,「冷え込む」는 둘 다 똑같이 자연현상의 계절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②의「冷え込む」는「寒さ(추위)」가 점점 농밀해져져 가는 樣相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①의「冷える」와 차이를 보인다.

(46)出入のものを呼んで戸締りを直そうと思ったら生憎(あやにく)、暮で用が立て込んでいて来られない。 (永日)

(47)最後にバックミラーに映った老人は、冷え込んだ歩道に背を丸め座り込んでいるだけだった。 (LA p.40)

(48)たちまち書物を膝の上に伏せて、鼻眼鏡をわざわざはずして、ああ駄目駄目スウィンバーンも、こんな詩を書くように老い込んだかなあと云って嘆息された。 (永日)

(46)의「立て込む」는 '일・용무가 한꺼번에 겹치다'라는 의미이며,「暮で用(묘의 용무)」가 겹쳐 일의 밀도가 높아져 농밀해져 가는 樣相을 나타낸다. (47)은 자연현상의 변화로「寒さ(추위)」가 점점 농밀해져져 가는 樣相을 (48)은 인간의 생리적인 변화로 점점 늙어가는 인간의 신체변화를 나타낸다. 위 용례의 複合動詞 또한「고정」의 의미와 동일하게 어느 내부영역으로 전항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진행되는 程度進行A의 예이며,「농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程度의 진행은 (46)~(48)의 용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체로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46)~(48)과 같은「농밀」의 의미요소는 본동사「こむ」의 自動詞의 의미인 "어느 내부영역이 事物・事項 등의 이동으로 밀도의 정도가 높아져 농밀해지는 것"에서 발생하여 후항동사「~こ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누계

①外国人選手は、日本人選手ほど「走る練習」をしていない。

②外国人選手は、日本人選手ほど「走りこむ練習」をしていない。

①, ②는 둘 다「走る」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의지적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②의「走り込む」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 전항의 動作・作用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①의「走る」와 차이를 보인다.

(49)細君は鉛筆で汚ならしく書き込んだ会計簿を持って彼の前に出た。 (永日)

(50)大橋はこの日に投げた１１５球を胸に刻み込んだ。「今日からまた走り込む」。(朝日)

(51)そうした「思い」や「不安」を、資料を読み込むことで構造化し、大災害を描きながらも社会へのわずかな希望を感じさせる。 (朝日)

(52)これらの 卓子(テーブル)は油を塗ってぴかぴかと拭き込んであるので、 (草)

(49)~(52)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시간을 들여 전항동사의 動作인「 書く」,「走る」,「読む」,「拭く」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의지적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複合動詞「~こむ」는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을 어떠한 목표를 향해 반복하는 것으로, 기술이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플러스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고정」,「농밀」이 마이너스적인 느낌을 동반하는 것과 상반된다. 그러나 程度의 강도를 한층 고조시키는 수식어가 문장 안에 자주 나타난다는 점과, 이동방향을 나타내는「ニ」格 명사구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49)~(52)과 같은「누계」의 의미요소는 “手の込んだ細工(손이 많이 가는 정교한 세공)”, “手の込んだ芝居(정교한 연기)”와 같은 본동사「こむ」의 自動詞의 의미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으로 살펴본, 程度進行A의 複合動詞「~こむ」의 종류와 특징을 表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表8 程度進行A의 종류 및 특징>

의미용법	程度進行A	고정・농밀・누계
格 조사	「ニ」格을 동반하지 않음	
구문특징	「すっかり(완전히) / 徹底的に(철저하게) / よく(잘)」등의 수식어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음.	
例	着こむ　眠りこむ　寝こむ　黙りこむ　ふさぎこむ　しょげこむ　しおれこむ　沈みこむ　考えこむ　決めこむ　覚えこむ　話しこむ　しゃべりこむ　構えこむ　ほれこむ　溺れこむ　困りこむ　弱りこむ　老いこむ　老いぼれこむ　老けこむ　ぼけこむ　やつれこむ　へばりこむ　冷えこむ　枯れこむ　錆びこむ　咳きこむ　急きこむ　せっこむ　じれこむ　めかしこむ　すましこむ　しゃれこむ　化けこむ　だましこむ　負けこむ　更けこむ　歌いこむ　泳ぎこむ　さらいこむ　使いこむ　磨きこむ　拭きこむ　読みこむ　煮こむ　洗いこむ　食べこむ　信じこむ　たてこむ　走り込む　揉みこむ　植えこむ　呑みこむ	

4.2.2 程度進行B

程度進行B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덧붙이자면,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의 程度의 진행이 심화된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것을 가리킨다. 전항과 후항동사의 의미를 모두 근저에 두고는 있지만, 두 의미의 조합만으로는 의미파악이 어려운 종류로 본래의 의미영역에서 확장된 의미파생이라 할 수 있겠다.

(53)牛肉は月一度の贅沢と決め込んでいる。 (朝日)

(54)彼女がせめて申し訳なさそうな顔をしていればまだ可愛げがあるのだが、デスクで知らん顔を決め込んでいる。 (肩 p.45)

위 용례의「決めこむ」는 둘 다 程度性을 나타내는 複合動詞이지만, 다시 세분화하면 (53)은 程度進行A이고 (54)는 程度進行B이다. 動詞「決める」는 '결정하다'라는 의미 외에 '판단, 단정하다'의 의미를 가지는데 (53)는 '~라고 제멋대로 믿어버리다'의 意味로, 전항의 作用이 완전히 진행되어 의미가 고조된 程度進行A을 나타낸다. (54)는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행하는 '~인 양하다, 체하다'의 의미로, 程度의 진행이 심화된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程度進行B이다. 이와 같은 程度의 진행으로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는 程度進行B의 複合動詞「~こむ」의 수는 극히 드물다. 대표적인 것으로는「申しこむ」와「落ちこむ」를 들 수 있다.

(55)すぐ会えるものとおもって気軽に面会を申し込んだところ、実に一か月も先の日を秘書に指定された。 (人間 p.144)

(56)彼女は落ち込んだり、すねたり、憂鬱になったりといったマイナスの気分になる娘ではないのである。 (図書 p.215)

(55)의「申しこむ」는 전항동사「申す」의 의미 '말하다'에,「~こむ」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程度進行B」의 예로, '신청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56)의「落ちこむ」는 '침울해지다'의 의미이며, 전항「落ちる」와 후항「こむ」의 의미조합만으로는 복합동사의 의미를 간단히 유추할 수 없다. 전항・후항의 의미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리고 (53)~(56)의 용례는 모두「程度進行A」과 동일하게 이동방향을 나타내는「ニ」格 명사구를 동반하지 않고 있다. 다음은 程度進行B의 의미를 나타내는 複合動詞「~こむ」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表9 程度進行B의 종류 및 특징>

의미용법	程度進行B	程度의 진행의 심화로 새로운 의미 첨가
格 조사	「ニ」格을 동반하지 않음	
구문특징	수식어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음	
例	当てこむ　落ちこむ　仕こむ　垂れこむ　申しこむ　寝こむ　しけこむ　決めこむ　更けこむ	

마지막으로「着こむ」,「刻みこむ」등과 같은 다수의 複合動詞가 文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落ちこむ」를 들어 다의적 성격을 갖는 複合動詞「~こむ」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57)猫の長い尻尾の毛がだんだん抜けて来た。始めはところどころがぽくぽく穴のように落ち込んで見えたが、後(のち)には赤肌(あかはだ)に脱け広がって、見るも気の毒なほどにだらりと垂れていた。　(永日)

(58)落ち込んだ彼の眼はその底で常に反対の何物かを語っていた。　(道草)

(59)何時まで落ち込んでいちゃ駄目よ。皆んなを集めてさくらをしのぶ会でもやりなさいよ。　(男 p.57)

(57)의「落ちこむ」는 '움푹 패다'의 의미로 물리적 이동을 나타내며, 눈에 띄게 털이 빠진 고양이의 꼬리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58)은 (56)과 같은 의미로 추상적 內部移動을 나타낸다. 그러나 (59)는 '침울해하다'라는 의미의 程度性을 나타내는 文이다. 이는 전항의 動作・作用이 정신적인 내부영역으로 깊이 진행되어 사고 작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內部移動이

주체자신의 방향으로 깊이 진행되어 程度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程度의 진행 결과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內部移動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의미가 추상화 되고 있는 程度性을 內部移動과 양분하여 따로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의적 성격을 갖는 일본어 동사의 특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複合動詞가 나타내는 의미를 단일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以上으로 複合動詞「~こむ」의 대표적인 意味인「內部移動」과「程度性」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5. 본동사「こむ」와 複合動詞「~こむ」의 관련성

앞 장에서 複合動詞「~こ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동사「こむ」를 비롯하여, 전항동사「こみ~」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複合動詞「~こむ」의 대표적인 의미용법으로「内部移動」과「程度性」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의미용법은 모두 근저에 内部移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程度性」은 程度의 강도에 따라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을 완전히 행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첨가시키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본동사「こむ」와 複合動詞「~こむ」가 서로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こむ」의 의미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추상화되어 가는지 그 의미파생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동사「こむ」와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内部移動을 의미파생 레벨 [1]로 규정하고, 程度의 강도에 따라 程度進行A를 [2], 程度進行B를 [3]으로 설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内部移動과 程度性을「A / B / C / D」의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表10 複合動詞「~こむ」의 의미파생 과정>

	본동사「こむ」	複合動詞「~こむ」		
의 미 용 법	内部移動	内部移動(기본의미)	程度性(의미파생)	
			程度進行A	程度進行B
의 미 특 징	고정・농밀・누계	물리적・추상적 이동	고정・농밀・누계	새로운 의미 첨가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의미파생레벨	[1]	[1]	[2]	[3]

[1] A : 手の込んだ細工。(내부로의 이동・농밀)

⬇

[1] B : ロープが腕に食い込む。(内部移動)

⬇ 의미파생

[2] C : この数日急に冷え込んだ空気。(程度進行A・농밀)

⬇ 의미파생

[3] D : 住所と代表者の連絡先を書いて申し込む。(程度進行B)

본동사「こむ」의 自動詞의 의미는 “어느 내부영역이 사람・물건 등의 이동으로 밀도의 程度가 높아져 농밀해지는 것”이다. 의미파생 레벨 [1]의 A는 動詞「こむ」의 自動詞의 의미요소인「농밀」의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는 예라 할 수 있으며, 內部移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B는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內部移動이며, 의미파생 레벨 [2]의 C에 나타난「冷え込む」는 자연현상의 변화로 추위의 程度가 진행된 程度性을 나타내고 있다.「冷え込む」는 추위가 농밀해지는「농밀」의 의미요소를 함의하고 있으며, 본동사「こむ」의 自動詞의 의미요소가 複合動詞「~こむ」에 흡수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冷え込む」는 본고에서 程度性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어느 <u>내부영역</u>으로 전항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진행하는 것」과 相異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온의 변화로 추위를 느끼는 것 또는 더위를 느끼는 등의 자연현상은 모두 인간의 신체가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作用으로, 신체의 영역으로 추위 또는 더위가 스며드는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程度性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항의 動作・作用을 완전히 행하여 보다 깊은 내부영역으로 진행하여 의미파생이 발생한 레벨 [2], [3]의 C, D는 程度의 강도에 따라「程度進行A」,「程度進行B」로 추상화되어 가고 있다. 즉, C는 전항의 作用이 ‘완전히~하다’로 해석되는 程度進行A이며, D는 전항・후항의 의미만으로는 파악 불가능한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程度進行B이다. 즉 A, B, C의 종류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서로 연관성을 갖으며 추상화되는 비교적 간단한 의미 구조를 갖는 반면, D는 獨自의 의미를 첨가하는 복잡한 의미 구조를 형성하며 추상화되어 가고 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고 複合動詞「~こむ」의 의미가 어떻게 추상화되는지, 어떠한 의미파생 과정을 보이는지 검토해 보자.

[1] A : テッパウに薬を<u>こむ</u>。。(내부로의 이동・고정)

⬇ 古語에서의「こむ」의 他動詞의 의미

[1] B : コップに水を注ぎ<u>込む</u>。(內部移動)

⬇ 의미파생

[2] C : そのまま眠り<u>込んで</u>しまう。(程度進行A・고정)

⬇ 의미파생

[3] D : 猫ばばを決め込んでる。(程度進行B)

본동사「こむ」는 현대어에서 自動詞의 기능만 나타나지만, A의 예문에 보이듯 他動詞의 기능이 옛 문헌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動詞「こむ」의 他動詞의 의미는 "어느 내부영역에 사람・물건 등을 이동시켜 고정시키는 것"이며, 이러한「고정」의 의미는 현대어에서 사라지지 않고 C와 같은 複合動詞「~こむ」에서 나타나고 있다. B는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內部移動이다. 意味派生 레벨 [2]의 C에 나타난「眠りこむ」는 전항「眠る」의 作用을 완전히 행하여 잠속으로 깊이 진행되는 程度進行A이며 고정의 의미요소를 갖고 있다. 의미파생 레벨 [3]의 D는 내부영역으로의 思考 작용이 깊이 진행된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程度進行B이다. A~D의 그룹은 모두 內部移動의 의미를 根底에 두고 있으며, 내부영역으로 진행하는 程度의 강도에 따라 C, D와 같은 의미파생이 발생하고 있다.

[1] A : 手の込んだ細工。(내부로의 이동・누계)

⬇

[1] B : データをフロッピに書き込む。(內部移動)

⬇ 의미파생

[2] C : 走り込んで足腰を鍛える。(程度進行・누계)

⬇ 의미파생

[3] D : ブームを当て込んだ店。(程度過剩)

의미파생 레벨 [1]의 A에 나타난「こむ」는 自動詞의 의미 중, '(손이 많이 가는)정교하다'의 의미이다. 이것은 목표를 향해 반복하는 의지적 행위의「누계」의 의미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의미파생 레벨 [2]의 C「~こむ」는 A와 같은 본동사의 의미특징을 이어 받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B는 複合動詞「~こむ」의 기본의미인 內部移動이다. 레벨 [2], [3]의 C, D는 程度性의 강도에 따라「程度進行A」,「程度進行B」로 추상화되어 가고 있다.

以上으로 複合動詞「~こむ」의 의미파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複合動詞「~こむ」가 나타내는 의미용법「內部移動」,「程度進行A」,「程度進行B」은 본동사「こむ」의 自・他動詞의 語義에서 파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서로 연속성을 보이며 추상화되고 있다.

6.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적 기능

본 장에서는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용법인「内部移動」과 같은 의미 기능을 갖는 유의어와의 비교를 통해「~こむ」의 의미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일본어의 특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자기의 영역과 그 영역 外를 확실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コソアド」의 체계[34]와「ウチ(내부)」와「ソト(외부)」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ソト(외부)」의 영역과 다른「ウチ(내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ウチ(내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무언가 형태적 특징이 있어야 한다. 그 특징으로서의「ウチ(내부)」는 좁은 의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회사, 국가 등, 자기가 속한 사회조직이라는 확대 영역을 의미하며, 자기 자신의 정신적 영역까지를 포함하여 항상「ウチ(내부)」와「ソト(외부)」의 영역을 염두 하여 단어를 가려 쓰고 있다. 다시 말해「ウチ(내부)」는「사물 혹은 사항이 물리적・심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시간적으로 主體와 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35]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요소인「内部移動」도 이「ウチ(내부)」의 영역에 있다.

＊(60)ラジオから低い落ち着いた声が<u>流れ込む</u>。
(60)'ラジオから低い落ち着いた声が<u>流れ出す</u>。 (朝日)
라디오에서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위 용례 (60)는 문맥 상,「流れ込む(흘러 들어가다)」의 사용은 부자연스럽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ウチ(내부)」에서「ソト(외부)」로의 외부이동이므로「~こむ」의 의미요소와 상반된다. 위 文은 외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流れ出す(흘러나오다)」의 사용이 적절하다.

「ウチ(내부)」영역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複合動詞로는「~こむ」이외에「~入れる」,「~入る」등이 있다.「~こむ」를 비롯한「~入れる」「~入る」는 모두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지만, 동일한 전항동사를 취하여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거나 미묘한

34) 대명사・형용동사・부사・연체사 중에서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는 어구의 체계.「これ」「それ」「あれ」「どれ」또는「この」「その」「あの」「どの」등이 각각「コ」「ソ」「ア」「ド」라는 공통된 두음(頭音) 계열로 정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체계.
35) 新美和昭 等 共著(1987)、『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4 複合動詞』荒竹出版

뉘앙스의 차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맥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용례의 조사 분석을 통하여「~こむ」와「~入れる」「~入る」의미적 차이를 분석하도록 하자.

6.1「~こむ」와「~入れる」의 의미적 차이

複合動詞「~入れる」는 본동사「入れる」의 의미인 '~의 속에 집어넣다'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 받아 주로「~に~を~入れる(~에~을 집어넣다)」의 문형을 취한다. 전항동사는「入れる」의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내며,「~入れる」는 두 개의 다른 영역 간의 사물의 이동, 외부에서 다른 방향의 영역 내부로 사물의 위치를 옮기는 의미를 첨가한다. 다음은「~入れる」와「~こむ」가 나타내는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①「~入れる」: 對象을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에 의해 어떤 내부영역으로 이동시키는 것.

②「~こむ」: 主體 또는 對象이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에 의해 어떤 내부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시키는 것, 또는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의 程度의 진행으로 어느 내부영역 깊숙이 집어넣는 것.

(61)味噌汁で喉に流し入れた。

(62)味噌汁で喉に流し込んだ。 (肩 p.254)

(63)仕事場に子供を引き入れるのは組合の就業規則に引っ掛かるだろうし、気は進まなかったのだが、あの博士の迫力には逆らえなかった。 (博士p.44)

(64)どうやってアメリカを引き込むのか、どうやって中国、インドを引き込むのか、こういうことが問題の中心になるわけです。 (朝日)

(65)燃料タンクの中に砂を投げ入れられる。 (人間 p.137)

(66)中込は第一球めを投げ込んだ。 (博士 p.150)

(67)図書館へ足を踏み入れるのは、去年の夏休み、ルートの自由研究のために、恐竜の本を借りに来て以来だった。 (博士 p.191)

(68)歩道橋を渡って、小谷が赤坂の町に足を踏みこんだとき、圭二(けいじ)は暗い嫉妬を感じた。

(男 p.140)

위 용례 (63)~(68)의 複合動詞「~入れる」와「~こむ」는 각각 동일한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같은 의미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61)에 비해 (62)의 動作은 전체가 완전히 안쪽 깊숙이 들어가는 과장스러운 느낌이 동반되고 있다. 그리고 (63)과 (64)는 '끌어들이다'라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만「引き込む」는「結末がわかっていてもドラマに引き込む(결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드라마에 마음이 끌리다)」,「読者を物語に引き込む(독자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 들이다)」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심리적인 작용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複合動詞「~入れる」와「~こむ」는 표면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65)의「投げ入れる」는 어떤 내부영역으로 이동시키는 事物의 공간적 이동만을 나타내지만 (66)의「投げ込む」는 투수가 볼을 던지는 動作을 충분히 행하거나 또는 철저하게 투구를 행하는 행위까지를 나타낸다. 즉 각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의 범위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67)의「~入れる」와 (68)의「~こむ」는 어느 내부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 놓다'라는 물리적 이동을 나타내며 의미상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踏み込む」는 다음의 (69)와 같이 '문제에 깊이 파고들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踏み入れる」보다 의미의 범위영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9)君はすばらしい探偵だ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った。でもそれ以上<u>踏み込んで</u>はいけない。 (人間 p.439)

즉 다의적 성격을 갖는 일본어의 動詞의 특징에 따라 동일한 전항동사에 접속하여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동일한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70)卵をボウルに<u>割り入れて</u>ほぐし、だし、調味料を加えて混ぜる。 (朝日)

(71)合法的な手続きで移住しようとする人々の列に、強引に<u>割り込む</u>ことは許せない。

(朝日)

(72)静岡空港の開港時にＪＡＬが乗り入れることで合意した。 (朝日)

(73)リョウが弾んだ足取りで店を飛び出し、車に乗り込んでゆく。 (肩 p.180)

(74)理解できるわけもないのだが、願いを聞き入れて外出してくれたお礼に、数学に関わりのある話をしようと思い質問した。 (博士 p.67)

(75)事件後、現場周辺を署員が聞き込んだところ、近く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花火を購入した２人が浮上。 (朝日)

(76)もっと先方の主張を取り入れて、周到な解釈を下してやる余地はいくらでもあったのである。 (硝子)

(77)商人が怒って追い掛けて来る隙に仲間たちが品物を取り込む。 (人間p.77)

(70)은「卵」를「ボウル(볼)」의 안으로 이동시키는 사물의 물리적 이동을 의미하며, (71)의「割り込む」는 '끼어들다'의 의미로, 무리하게 안으로 끼어드는 행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72)의「乗り入れる」는 기차, 비행기, 버스 등의 노선을 연장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73)의「乗り込む」는 기차, 비행기, 버스 등에 올라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74)는 '(청을)들어주다'의 의미, (75)는 '탐문하다'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76)은 '(주장을)받아들이다'의 의미, (77)은 '훔치다'의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 以上으로 같은 전항동사에 접속하여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入れる」,「~込む」의 어느 쪽과도 결합하는 전항동사의 예이다.

編み~, 受け~, 移し~, 追い~, 押し~, 落とし~, 買い~, 抱え~, 書き~, 囲い~, 担ぎ~, 刈り~, 借り~, 聞き~, 刻み~, 汲み~, 組み~, 繰り~, 加え~, 差し~, 誘い~, 仕~, 絞り~, 仕舞い~, 吸い~, 救い~, 摺り~, 注ぎ~, 抱き~, たくし~, 手繰り~, 叩き~, 付き~, 積み~, 溶かし~, 取り~, 流し~, 泣き~, 投げ~, 乗り~, 掃き~, 運び~, 挟み~, はたき~, 填め~, 引き~, 引き摺り~, ひたし~, 引っ張り~, ひねり~, ひたし~, 吹き~, 踏み~, 巻き~, 招き~, 召し~, 申し~, 揉み~, 盛り~, 呼び~, 割り~ 등

4.2「~こむ」와「~入る」의 의미적 차이

複合動詞「~入る」는 본동사「入る」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은 '~하여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內部移動과 '완전히~하다'라는 程度性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전항동사는「入れる」의 목적이나 방법을 나타낸다. 程度性이 없는「~入れる」에 비해「~入る」는「~こむ」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갖는 複合動詞라 할 수 있으며,「~入る」가 지닌 程度性은 주체자신이 그 動作・作用 속으로 집중해 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內部移動과 程度性의 동일한 의미용법을 갖고 있는 複合動詞「~こむ」와「~入る」는 같은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항상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각각 程度의 차를 보이기거나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入る」는「~こむ」,「~入れる」에 비해 생산비율이 가장 낮다.「~入る」와「~こむ」가 나타내는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入る」: 主體 또는 對象이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에 의해 어떤 내부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시키는 것, 또는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에 깊이 집중하는 것.

②「~込む」: 主體 또는 對象이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에 의해 어떤 내부영역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시키는 것, 또는 전항동사의 動作・作用의 程度의 진행으로 어느 내부영역 깊숙이 집어넣는 것.

(78)いまにも追跡者手錠をかまえて部屋に踏み入ってくるような恐怖に震えた。
(人間 p.420)

(79)彼女は近くの２Kのアパートで一人暮しをしていたが、警察がアパートに踏み込んだ時には、たいしたものは残っていなかったそうだ。 (図書 p.180)

(80)彼らは押し入るように中へ入り込んだ。 (人間 p.346)

(81)誰かが後から覗き込もうとするので私はあわててそのメモをポケットに押し込んだ。
(男 p.51)

(82)その時、村人の六、矢来の中へ駆け入る。 (朝日)

(83)女がお弁当を抱えて駆け込んできた。 (図書 p.288)

(84)体に染み入るようなワインでした。 (朝日)

(85)カードに染み込んだチョコレートのにおいが、変質していたのかもしれない。

(博士 p.254)

위의 용례는 모두 동일한 전항동사에 결합하여 의미적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다.『新明解国語辞典』36)은 動詞「入る」를「はいる」의 우아한 표현이라 記述하고 있다.「~入る」도「~こむ」와 비교하여 어감에서 고풍스러움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 문장이 전달하는 어감은 다르다 할 수 있겠다. (78)과 (79)의 의미적 차이를 구분하면,「踏み込む」는「踏み入れる」에 비해 속어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81)과 (83)은 의지성이 강한 사람의 행동을, (85)는 예상치 않는 것이 들어오는 저항감 혹은 일단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는 고정감을 동반하는 등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86)君が寝入るのを見てから引き揚るよ。 (男 p.12)

(87)やみくもに、このまま寝込んでしまいたい気持、ゴーゴー燃えさかり、やがて焼け落ちる家並みも、別世界のことに思えるのです。 (男 p.209)

(88)博士はプレーに見入っていた。 (博士 p.146)

(89)最悪のシナリオを見込んで生活設計したほうがいい。 (朝日)

(86)과 (87), (88)과 (89)는 각각 동일한 전항동사에 접속하여 程度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각각 程度의 강도에서 차이를 나타내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86)의「寝入る」는 깨어 있는 狀態에서 잠드는 狀態로 변화하는 추상적 內部移動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87)의「寝込む」는 잠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 차라리 병으로 자리에 드러눕고 싶은 기분까지를 포함한다.「寝入る」는 '푹(완전히) 잠들다'라는 程度性의 의미를 가지지만, 程度의 진행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寝込む(병으로 드러눕다)」와 비교하여 그 程度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88)은 主體의「博士」가 경기에 몰입하여 열심히 주시하고 있는 모습을 (89)는 최악의 狀況을 대비하여

36) 金田一京助 等(1992) 『新明解国語辞典』三省堂

미리 시나리오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각 문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다음은 동일한 전항동사를 취하여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90)側近に取り入る。 (広辞)
(91)決算で取り込んでいる。 (広辞)
(92)みんな静かに聞き入っている。 (図書 p.266)
(93)うわさを聞き込む。 (広辞)

(90)의「取り入る」는 '아첨하다'의 의미를 (91)의「取り込む」는 바쁘고 복잡한 상황을 나타낸다. (92)의「聞き入る」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는 모습을 (93)의「聞き込む」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 알거나 탐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以上으로서 複合動詞「~入る」와「~こむ」의 의미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의미로 대응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뉘앙스의 차이가 동반되고 있었으며, 程度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명백하게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은「~入る」,「~込む」의 어느 쪽과도 결합하는 전항동사의 예이다.

暴れ~, 打ち~, 押し~, 落ち~, 駆け~, 聞き~, 切り~, 食い~, くぐり~, 転げ~, 差し~, 立ち~, 忍び~, 染み~, 滑り~, 咳き~, 攻め~, 頼み~, 付け~, 溶け~, 取り~, 流れ~, 泣き~, にえ~, 寝~, 踏み~, 吹き~, 紛れ~, 迷い~, 見~ 등

以上으로 동일한 内部移動의 의미를 갖는 複合動詞「~入れる」,「~入る」와의 비교를 통해, 複合動詞「~こむ」가 가지는 의미적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狀況에 맞는 적절한 어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複合動詞「~こむ」,「~入れる」,「~入る」가 동일한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거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전달하는 느낌이나 어감에서 차이를 나타내거나, 의미의 범위영역이 다르거나, 程度의 차를 보이는 등 각각의 의미 역할은 다르다 할 수 있다.

Ⅲ. 結論

본고는 複合動詞 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고 다의적 의미를 갖는「~こむ」를 대상으로 그 의미용법과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였다. 複合動詞「~こむ」의 의미 특징을 조사분석하고, 정리하여 체계화함으로서 새로운 복합동사를 이해하는 응용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動詞「こむ」는 複合動詞의 후항뿐만 아니라 전항으로도 기능하고 있기는 하나 그 종류가 8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고는 후항「~こむ」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먼저 여러 선행연구 및 사전을 살펴본 결과, 본동사「こむ」가 현대어에서는 自動詞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본래 他動詞의 기능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自動詞로서는「농밀」과「누계」의 의미 특징을 갖는 內部移動을 나타내고, 古語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他動詞는「고정」의 의미 특징을 갖는 內部移動을 나타낸다. 그리고 古語에서만 보여 지는「こむ」의 他動詞의 기능은 현대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壁にコンセントを植え込む。(벽에 콘센트를 박아 고정시키다)」와 같이 複合動詞의 후항「~こむ」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본동사「こむ」의 他動詞의 의미 특징인「고정」과 自動詞의 의미 특징인「농밀」,「누계」가 후항동사「~こむ」의「程度進行A」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등 본동사「こむ」와 후항동사「~こむ」가 의미적인 면에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他動性調和の原則」에 따라「~落とす」가 非対格自動詞와는 결합하지 않는 제한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複合動詞「~こむ」는 他動詞, 非能格自動詞, 非対格自動詞의 모든 동사와 제한 없이 자유스럽게 결합하여 많은 複合動詞를 구성한다. 그러나「~こむ」가 다른 종류의 후항동사에 비해 自・他動詞의 제한 없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다양한 동사와 결합하지만, 항상 모든 動詞와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動詞四分類法」에 따라「~こむ」의 전항으로 繼續動詞, 瞬間動詞, 狀態動詞, 第四種動詞를 대입해 본 결과, 시간적 관념과 관계하는 繼續動詞, 瞬間動詞와의 결합은 성립되었지만, 시간적 관념을 초월한 狀態動詞, 第四種動詞와의 결합은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付

く」와 같은 후항동사가 전항의 格을 제한하고「付く」가 필요로 하는 格만을 명시하는 것과 달리, 후항동사「~こむ」는 전항의 格을 제한하지 않고 공존하며 각각의 格 성분을 한 문장에 명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용법은 크게 內部移動과 程度性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는 程度性을 다시 의미 구조별로 程度進行A와 程度進行B로 세분화하였다.「程度進行A」는 어느 내부 영역으로 전항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완전히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보통 '완전히~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程度進行B」는 전항의 動作・作用의 程度가 심화된 결과 새로운 의미가 첨가된 것이다. 즉,「程度進行B」는 전항 및 후항의 의미를 조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파악이 어려운 가장 복잡한 의미 구조를 갖는 複合動詞이다. 간단히 말하면, 程度性의 강도에 따른 분류법으로「程度進行A」는 程度의 강도가 약하게 일어난 것,「程度進行B」는 강하게 일어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以上의 내용 및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용법에 관한 본고의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11 본고의 複合動詞「~こむ」의 분류>

	본동사「こむ」	複合動詞「~こむ」		
의미용법	內部移動	內部移動(기본의미)	程度性(의미파생)	
의미특징	自動詞 : 농밀・누계 他動詞 : 고착	물리적 이동 추상적 이동	程度進行A	程度進行B
			고정・농밀・누계	새로운 의미 첨가
의미특징			수식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格 성분		「ニ」格을 동반	「ニ」格을 동반하지 않음	
구 분	A 그룹	B 그룹	C 그룹	D 그룹
의미파생레벨	1	1	2	3
例	手が込んだ仕事	釘を柱に打ち込む	人が老い込む	面会を申し込む

위의 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동방향을 명시하는「ニ」格의 동반 여부에 따라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용법을「內部移動」과「程度性」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

「内部移動」을 나타내는「~こむ」일지라도 이동해 가는 영역이 주체자신의 방향일 경우와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ニ」格 명사구는 생략될 수가 있다. 또 複合動詞「~こむ」가 나타내는 의미용법「内部移動」,「程度進行A」,「程度進行B」은 본동사「こむ」의 自・他動詞의 語義에서 파생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서로 연속성을 보이며 추상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複合動詞「~こむ」와 비슷한 의미용법을 갖는 유의어「~入れる」,「~入る」와의 비교를 통해「~こむ」의 의미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入れる」는 内部移動의 의미용법을,「~入る」는 内部移動과 程度性의 의미용법을 갖는 複合動詞이다.「~入れる」,「~入る」는 複合動詞「~こむ」와 동일한 전항동사와 결합하여 의미상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동반되거나, 의미의 범위영역, 程度의 강도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以上으로 내부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일본어 複合動詞「~こむ」의 의미용법 및 구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複合動詞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본 연구가 일본어의 複合語 중에서도 풍부한 표현력과 높은 생산성을 갖는 複合動詞를 이해하고 그 습득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문 상의 樣相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보다 문법적인 입장에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방법과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参 考 文 献

【出典文獻】

(外国)　新美和昭,(1987)『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荒竹出版社

(広辞)　新村　出(1998)『広辞苑第五版』岩波書店

(LA)　石田衣良(2005)『LAST』講談社文庫

(男)　石田衣良(2006)『男の涙、女の涙』 石田衣良選/日本ペンクラブ編

(図書)　恩田 陸(2005)『図書室の海』新潮文庫

(博士)　小川洋子(2005)『『博士の恋した数字』新潮文庫

(硝子)　夏目漱石(1990)『硝子戸の中(うち)』岩波文庫

(文鳥)　夏目漱石(1976)『文鳥・夢十夜』新潮文庫

(夢)　夏目漱石(1976)『文鳥・夢十夜』新潮文庫

(草)　夏目漱石(1990)『草枕』岩波文庫

(道草)　夏目漱石(1990)『道草』岩波文庫

(永日)　夏目漱石(2000)『夏目漱石 (明治の文学)』중「永日小品」筑摩書房

(人間)　森村誠一(1987)『人間の証明』角川文庫

(肩)　唯川 恵(2004)『肩ごしの恋人』集英社文庫

(複合)　新美和昭 等 共著(1987)『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4 複合動詞』荒竹出版

【出典 Internet site】

朝日新聞 (http://www.asahi.com/)

(朝日)　朝日新聞

【單行本・論文】

石井正彦(1983)「現代語複合動詞の語構造分析－＜動作＞・＜変化＞の観点から－」『国語学研究』No.23

景山太郎(1993)『文法と語形成』ひつじ書房

金田一春彦(1976) 『日本語のアスペクト』、むぎ書店
寺村秀夫(1978) 「日本語の文法(上)」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４. 国立国語研究所
_____(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ト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森田良行(1977) 『講座日本語教育』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_____(1978) 「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講座日本語教育第14冊』
早稲田大学語学教育研究所
_____(1994)、「動詞の複合における意味構成」『動詞の意味論的文法研究』明治書院
姫野昌子(1999)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李暻洙(1997) 「前項動詞「切る」、後項動詞「~切る」と関連づけて」『世界の日本語教育』No.72
新美和昭 等 共著(1987) 『韓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４ 複合動詞』荒竹出版
松田文子(2004) 『日本語複合動詞の習得研究―認知意味論による意味分析を通して』ひつじ書房
宮地幸一(1985) 「活用表現論Ⅱ」『ある型動詞の諸相―作家の表現を中心として』桜楓社
具怜宜(2001) 「日本語の複合動詞についての一考察 -「~込む」を中心に-」韓国外国語大学院
白秀珍(2004) 「日本語 複合動詞에 대하여 -空間的相의「~こむ」「~入れる」를 中心으로」
仁荷大學校 敎育大學院
李和信(2005) 「複合動詞「~こむ」에 관한 考察」慶熙大學校 大学院
睦俊秀(2008) 「複合動詞「~こむ」の意味と構造の研究ー連語論の立場からー」韓国外国語大学院

【辞典】
新村 出(1998) 『広辞苑第五版』岩波書店
金田一京助 等(1992) 『新明解国語辞典』三省堂
小泉 保 等(1989) 『日本語基본동사用法辞典』大修館書店
グループ・ジャマシイ(1998) 『教師と学習者のための日本語文型辞典』くろしお出版
林 巨樹(1985) 『現代國語例解辞典』小学館
久松潜一・佐藤謙三(1978) 『角川国語辞書』角川書店
森田良行(1989) 『基礎日本語辞典』角川書店
社団法人 日本語教育学会(2005)『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어교육	학 번	20058037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 고경미 한문 : 高敬美 영문 : Ko Kyong-Mi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주공아파트 308-404				
연락처	062) 269-5690 E-MAIL : marse-1@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일본어 복합동사「こむ」의 용법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Usages of 「~komu」, a Japanese Compound Verb.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월 일

저작자 : 고 경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